장승·능묘·민속…조선시대 불교미술을 다시 보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유홍준의 한국미술사 강의 4

유홍준 지음

"'나주 불회사(佛會寺)의 돌장승'(국가민속문화재 11호)는 우리나라 동장승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뛰어난 조각이다."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의 말이다. 사찰장승이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상을 닮았기 때문이다.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있는 얘기다. "사실적인 박진감과 전형성"이 느껴지고 친근하다. 유 교수의 설명을 좀 더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이마가 불거진 형상의 할아버지상(하원당장군)은 동그란 눈에 양 볼이 불거지고, 일자로 꽉 다문 입 사이로 다 빠지고 남은 이 두 개가 삐져나오고, 턱 밑 긴 수염이 마치 머리댕기를 닿듯이 엮어 내려졌다. 할머니상(주장군)은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이가 다 빠졌는데, 오므린 입가의 맑은 표정이 한없이 인자한 인상을 풍긴다."

유 교수는 장승에는 전통 미술과는 다른 민족미술만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본다. 장승은 형식에서는 소박한 아름다움, 내용에서는 '삶의 생명력'을 지닌다. 특히 지배층 문화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장승은 "생산층의 공동체 문화가 낳은 예술적 소산"으로써 "생산 과정의 협업, 풍요·다산·액막이·수호신 등 농업 생산자들이 자연에 대해 갖는 감정과 정서, 그리고 그들이 희구하는 정당하고 소박한 신앙"과 관련돼 있다는 것이다.

최근 발간된 '유홍준의 한국미술사 강의 4'는 조선 민속미술을 비롯해 조선의 건축, 불교미술, 능묘조각을 아우른다. 이번 권의 특징은 그동안 미술사에서 소외됐던 분야를 전면으로 부각시켰다는 점이다. 흔히 말하는 미술사의 사각지대를 소환했다.

전통적인 미술사는 건축, 조각, 회화, 공예 순으로 기술된다. '한국미술사 강의' 1권과 2권은 이 체제를 따랐다. 그러나 조선 미술사는 왕조의 단선적 흐름으로만 전개되지 않았다. 왕실과 양반 문화와는 다른 불교미술, 민속미술이 따로 존재했다. 저자가 이번 책에서 이를 개별의 장으로 다룬 것은 그 때문이다.

먼저 조선의 건축은 유교국가 이념을 체현하는 방편이었다. 유교 경전에 따라 종묘와 사직 궁궐을 배치했는데, 있는 그대로 답습하는 차원이 아니었다. 물줄기 등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변용했다. 조선의 설계자인 정도전의 말을 빌리자면 '검소하면서도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면서도 사치스럽지 않게' 조성했다. 우리 고유의 미학을 잘 보여주는 것이 종묘이며 궁궐 중에서는 창덕궁이다.

민가 건축의 대표는 서원과 양반주택이었다. 전자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큼 고유한 양식과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후자는 선비 정신이 투영된 건축물이다. 풍류를 위해 지은 정원과 원림, 누정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조선 건축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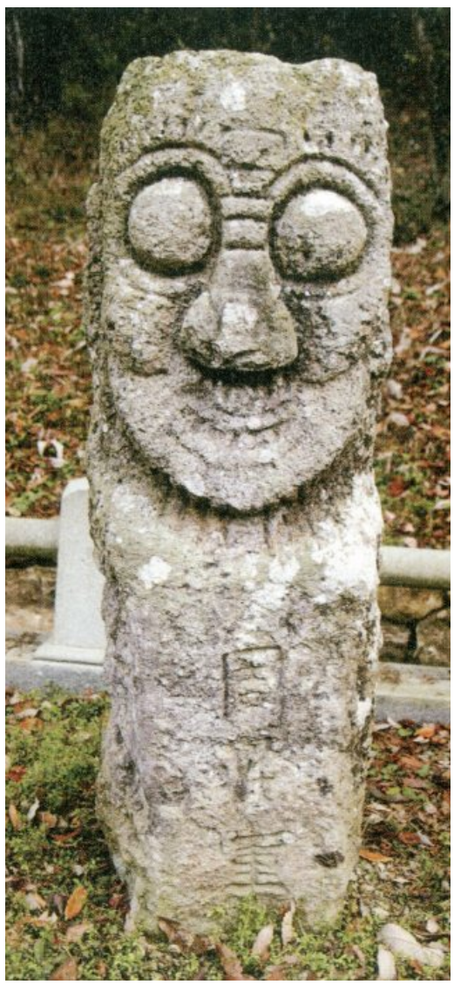
숭유억불이 말해주듯 조선에서 불교는 억압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태조, 세종, 세조 등은 불교를 존중했고 왕실의 여인들은 불교를 신뢰했다. 특히 명종의 모친인 문정왕후 시기는 불교가 중흥기를 맞기도 했다. 회암사 무차대회의 화려한 금니 불화, 채색불화를 비롯해 왕실과 종친이 발원해 그려진 '도갑사 관음32응신도', '안락국태자경변상도' 등은 그러한 예다.

저자는 조선의 불화가 고려의 그것에 비해 예술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에 다른 관점을 취한다. 조선 불화는 고려의 그것과 비교할 때 서사적 구성과 개성을 택했다는 논리다. 조선 후기 감로탱과 팔상도, 시왕도 등 불화들은 각기 그 목적에 맞는 고유한 개성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한다.

능묘조각은 망자의 동반자이자 수호자다. 석물조각은 대표 왕릉에서 찾을 수 있는데, 법전의 규정에 근거해 세워졌다. 왕릉 앞에는 문신석과 무신석 그리고 석마가 세워졌고 왕릉 주위로 벽사(귀신을 물리침)의 의미를 담아 석호(石虎)와 석양(石羊)을 세웠다. 유 교수는 국초에는 간결하고 사실적인 조각이었지만 점차 석물이 커지고 과장되는 측면도 있었다고 했다.

한편 저자는 "완벽한 미술사 체제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미술사는 그 넓이와 깊이를 확대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눌와·3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나주 불회사 돌장승인 할아버지상(왼쪽)과 할머니상은 우리나라 돌장승의 백미로 평가받는다.

우리의 밤이 시작되는 곳

고요한 지음

취업을 못 하고 아르바이트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던 재호는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잃고 만다. 그가 다시 하게 된 일은 장례식장 빈소 도우미. 그는 장례식장 일이 끝나고 나면 오토바이를 타고 도시를 질주한다. 오토바이를 타는 이유는 죄책감과 알바의 답답한 시간을 벗어나기 위해서다. 그에게는 어린 시절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있다. 목조리기 게임을 하다 자신이 누나를 죽였다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올해의 세계문학상 수상작 고요한 작가의 '우리의 밤이 시작되는 곳'은 장례식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20대 남녀를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이다. 작가는 지난 2016년 '문학사상'과 '작가세계' 신인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세계 권위의 번역문학 전문저널 '애심토트'에 단편 '종이비행기'가 소개될 만큼 역량을 인정받았다.

이번 소설은 청춘의 방황과 성장, 죽음의 의미를 깊고도 무겁지 않게 그렸다. 주인공 재호는 어느 날 새벽 같은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마리가 맥도날드에 있는 것을 본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 번번이 낙방을 한 마리는 장례식장 아르바이트를 한다. 집이 먼 까닭에 차비를 아끼려고 맥도날드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 것이다. 이들은 밤거리를 나와 도심 곳곳을 누비며 다양한 새벽의 모습을 본다.

소설은 장례식장이라는 공간과 가족의 죽음이라는 상처를 매개로 삶을 들여다보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한편 권지예 소설가는 "죽음이 이토록 깊고 푸른 밤의 여행 같다면 우리는 삶을 얼마든지 설레며 견딜 수 있다. 아름다운 애도와 성장의 서사가 청춘뿐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위안을 선물하리라 생각된다"고 평했다. 〈나무옆의자·1만3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미래기술 10

원호섭 지음

양자컴퓨터와 양자 통신, 시스템반도체, 핵융합 발전, 로켓발사체, 이차전지, 유전자가위 등…. 다소 생소한 용어이지만 일상에서 심심치 않게 듣는 말이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과학기술은 눈부시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사회가 다원화, 복잡화되면서 첨단 기술과 관련한 내용들도 넘쳐나고 있다.

사실 과학기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애플이나 구글, 삼성전자, 메타 등 세상을 쥐락펴락 하는 기업들은 모두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기술자본의 시대라는 말처럼 양자컴퓨터, 전고체전지, 유전자가위 등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기업들은 사활을 걸고 있다.

일간지에서 과학 관련 기사를 쓰는 원호섭 기자가 펴낸 '미래기술 10'은 세상을 바꾸고 있는 10가지 과학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10대 기술은 세계경제포럼, 메사추세츠공과대학, 사이언스, 네이처, 한국과학기술평가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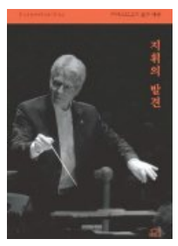
저자는 양자기술에 대해 설명하면서 흥미로운 질문을 던진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창이 있다. 어떤 방패든 뚫을 수 있다(양자컴퓨터).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방패(비트코인)가 있다.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다. 두 창과 방패가 맞닥뜨리면 누가 이길까?" 삼성, 현대를 비롯한 국내 대기업 외에도 아마존을 비롯해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이 양자기술에 투자를 한 것이 10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 저자는 이제 막 물꼬가 트인 양자기술 등은 그만큼 큰 보상이 따라올 게 확신한 분야라고 강조한다.

이밖에 책은 '백신 인류를 구하다-사백시부터 mRNA까지', '지구를 지키는 확실한 방법-이산화탄소 포집' 등은 미래산업의 핵심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나무야·1만4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지휘의 발견

존 마우체리 지음, 이석호 옮김



지휘자를 가르키는 말은 다양하다. 이탈리아 인들은 '대가', '거장'을 뜻하는 마에스트로(maestro)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고 때론 '오케스트라의 수장'을 뜻하는 카포 도케스트라(capo d'orchestra)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단어로는 지휘자를 설명하기엔 부족함이 있다.

저자 존 마우체리는 지휘자를 뜻하는 영단어 컨덕터(conductor)가 본래 '전도체'라는 의미를 한다는 점에 착안해, 지휘자의 일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작곡가로부터 에너지를 받아, 소리를 생사하는 많은 사람들과의 협업에 힘입어 그 에너지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 하는 것."

뉴욕 필하모닉, 프랑스 국립관현악단 등 세계 우슈의 오케스트라와 오페라단을 책임지여 명망 높은 지휘자로 활동해 온 존 마우체리가 50여 년의 걸친 자신의 경력을 진솔하게 되돌아 보고 선배 지휘자들인 번스타인과 카라얀, 스토코프스키, 토스카니니 등의 발자취를 꼼꼼히 기록해 쓴 지휘의 일대기를 다룬 책 을 발간했다.

'지휘의 발견'은 존 마우체리가 '클래식의 발견'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이는 신작으로, 전작이 음악 전반에 관한 길라잡이 였다면 이 책은 그가 평생 종사해온 지휘라는 분야를 엿볼 수 있다. 책은 저자의 들어가는 말부터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악보 읽는 법을 모르다시피 한 사내가 빈 필하모닉을 지휘하며 말러의 대작 '교향곡 2번'을 연주한 경험이 있다는 내용이다. 놀랍지만 사실이다. 저자는 이렇듯 이해할 수 없는 지휘와 얽힌 일화를, 그 순간이 어떻게 빚어졌는가를 자신의 오랜 지휘 경험을 통해 풍부하고도 섬세하게 들려준다. 〈에포크·2만원〉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